

# ‘전국 대학 입시정보 받아가세요’

### 원광대 문화체육관서 오늘부터 이틀간 ‘대입정보박람회’… 총 75개 대학 참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8~29일 이틀간 원광대학교에서 도내 고등학생과 졸업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대학 입시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호남권 24개교, 수도권 29개교, 중부권 14개교, 영남권 8개교 등 총 75개 대학이 참여한다. 회차별 1,000명씩 3개 회차로 구분해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운영, 개인별 참가 신청 후 28일 오후 1시 30분~6시, 29일 오전 9시 30분~오후 12시 30분, 오후 2시~5시에 참가할 수 있다. 개막식은 28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리며, 개막식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대학별 상담은 별도 신청없이 당일

현장에서 원하는 대학의 부스 앞에서 대기 후 본인 순서가 되면 참여, 대학 입학관계자가 직접 대입전형 및 지원 전략 관련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 부스와 함께 대학별 입시설명회도 열린다. 대학별 입시설명회와 진학특강은 원광대 문화체육관 옆에 있는 한의학전문대학원 5개 강의실에서 40분씩 1회 실시하며, 대학별 설명회

는 원하는 대학의 설명회 시간을 확인 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개막식과 진학특강은 박람회 당일 전북교육청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시청 가능하다.

서거석 교육감은 “2024년도 대학 입학정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면서 “박람회 이후에도 수시 관련 입시설명회 등 다양한 기회를 마련,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원하는 대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하반기 재취업 지원서비스 교육 진행

### 퇴직 예정 교육공무원 대상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퇴직 예정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퇴직 예정인 교육공무원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 교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퇴직 예정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이는 체계적인 자기 이해, 경력설계 등을 통해 퇴직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퇴직 전 지원을 통한 공공기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반기 교육은 28일과, 31일 그리고 8월 3~4일, 21~22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이 교육에는 희망자 300여명이 참여하며, △생애설계 기본 교육 △진로설계 △진로설계서 작성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무원들과 함께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서 “재취업지원서비스가 퇴직 예정 교육공무원 직원의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후반기를 설계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공개모집을 통해 유재복 교권보호관(사진 오른쪽)을 최종 선정, 8월 1일자로 임용한다. 사진은 유재복 교권보호관이 서거석 교육감으로부터 임용장을 수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도교육청, 유재복 교권보호관 임용

### 8월 1일자로…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구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공개모집을 통해 유재복 교권보호관을 최종 선정, 8월 1일자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인권조례를 바탕으로 교육주체 모두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인권 우호적인 학

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담기구인 전북교육인권센터를 두고 있으며, 지난 4월 인권담당 사무관을 임용한 데 이어 이번에 교권보호관을 임용했다.

교권보호관은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업무 및 교원지원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연

수·훈보 업무를 담당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현장의 경험과 실무 역량이 풍부한 교권보호관을 임용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유재복 교권보호관은 1980년 무주안성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도교육청 장학사와 장학관을 거쳐 전주효림초, 익산공동초 교장을 역임하는 등 40여 년의 교육경력에 갖고 있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평생교육원

### 2학기 수강생 모집

### 6개 학부, 249개 강좌

### 내달 1~14일 신청접수

### 강좌는 9월 1일부터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양병호)은 2023학년도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학기 교육강좌는 9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운영된다.

오는 8월 1일~14일까지 전북지역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https://cc.jnu.ac.kr/>), 전화(063-288-0022),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평생교육원은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책임지고 학습 기회 제공 및 학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복지학부, 생활교양학부, 어문학부, 스포츠건강학부, 예술학부, 직업교육학부 등 6개 학부 249개 강좌를 마련했다.

적용대상자에 따라 등록금 5%~30%가 감면되며, 수료기준을 준수한 교육 이수자에게는 전북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양병호 원장은 “평생교육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명제에서 출발한다”며 “지역주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제공을 위해 평생교육원의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연극 · 영화캠프 참여, 예술적 감수성 ‘쑥쑥’

### 도교육청, 초등 연극캠프

### 청소년 영화캠프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 연극과 영화캠프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27~28일 전주한벽문화회관에서 도내 초등학생 중 희망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육연극캠프’가 진행된다.



27일 전주한벽문화회관에서 도내 초등학생 중 희망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육연극캠프’가 열리고 있다.

전북교육연구회와 전북교사극단 회원들의 지도로 이뤄지는 이번 연극 캠프는 학생들이 연극 체험을 통해 자신감과 창의력, 그리고 표현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교육연극에서 쓰이는 다양한 연극기법을 통해 극에 대한 지식을 깊이 있게 배우고 주어진 상황과 인물에 몰입해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도와 협력적 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통과 교감을 위한 연극놀이 △역할극을 통한 과정 드라마 체험 △정지 동작을 활용한 장면 표현하기 △주어진 상황과 정보에 맞는 상황극 만들기 △T.I.E. 교육연극 참여하기 등이 있다.

이어 7월 31일~8월 2일에는 부안 학생해안수련원에서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 35명이 참여하는 제16회 전북청소년영화캠프가 마련됐다.

전북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북영상교

육연구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영화 제작 체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학생들이 영화 기획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체험할 수 있으며, 특히 캠프에서 제작된 영화는 전북청소년 영화제 출품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캠프 내용은 △선택시 집중강의(단편 영화 기획, 시나리오, 촬영, 연기,

편집) △모뎀 회의·촬영·편집 △작품 시사회 등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연극과 영화는 종합예술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교육매체가 될 수 있다”면서 “도내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활동에 참여해 바른 인성을 기르고, 각자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식중독 등 독자들 이해 돕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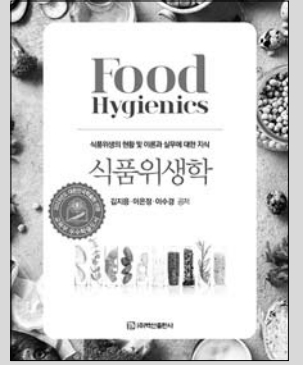
### 전주대 김지음 교수 등 저서 ‘식품위생학’ 올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 도서 선정

전주대학교 김지음 교수(농식품 경영학과 학과장)와 이은정(석사), 이수경(박사)의 저서 ‘식품위생학의 현황 및 이론과 실무에 대한 지식: 식품위생학이 2023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 도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학술 도서는 교육부와 대한민국의학술원이 기초학문 분야 연구 및 저술 활동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매년 기초학문 분야인 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자연과학 등 4개 분야에서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총 3,000종의 도서가 접수, 이 중 인문학 78종·사회과학 103종·한국학 88종·자연과학 80종 등 총 299종이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됐다. 특히 자연과학 분야에 김지음 교수의 저서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됐다.

저자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원론적 내용과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식중독 및 감염병



‘식품위생학의 현황 및 이론과 실무에 대한 지식: 식품위생학’ 책 표지

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정부 기관에서 보도한 보도자료를 활용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정은성 기자

## 우석대, 제9대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위촉

### 교원 · 직원 · 학생 · 외부인사 등 총 12명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27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제9대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발전계획과 학칙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대학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이날 위촉된 평의원은 조상혁(경찰행정학과)·은민균(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김홍준(한의예과)·백종남(특수교육과)·권민택(경영학부) 교수

와 최주호(홍보실)·이창수(원격교육지원센터)·정종학(총무팀) 직원, 유유희(한의학과) 조교, 신광호(유아수교육과 4년) 총학생회장, 유희태 완주군수, 방근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감사실장 등 12명이다.

남천현 총장은 “대학의 중요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인 만큼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대학의 위기 극복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27일 우석대학교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제9대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위촉장 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남천현 총장과 제9대 평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원광대, 코레일 전북본부와 철도 인재 양성 협약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와 코레일 전북본부(본부장 윤동희)가 철도 인재 양성 및 상호보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신설되는 원광대 철도시스템공학부를 통해 연계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27일 원광대에 따르면 이번 협약식은 지난 28일 박성태 총장과 윤동희 본부장, 철도시스템공학부 교수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광대 대학본부에서 열렸으며,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적 자원 및 인프라 교류, 철도 분야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교육 운영 지원, 철도 관련 연구소 운영 지원, 재학생 견학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코레일 인직원 장학금 지원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호남 제1의 철도 중심도시로서 유라시아 거점 역을 표방하는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원광대는 2024학년도부터 개설되는 철도시스템공학부를 통해 전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철도 전문기술인 양성이 가능하게 됐다.

박성태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운동회 분위기로써 철도 관련학과 신설

과 관련해 많은 제안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고, 이를 기반으로 실무협력을 거쳐 오늘 협약에 이르게 됐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실질적인 상호협력 을 통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동희 본부장은 “전북의 대표 사학인 원광대에서 철도 관련학과를 신설하고, 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오늘 협약까지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코레일 전북본부가 차량, 운전, 영업, 시설 등 전 분야에서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철도 교통 인프라를 통해 지역 인재들이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 철도시스템공학부 교수들은 “철도 분야 인재양성 및 기술과 인력교류를 위해 코레일과 상호 교류·협력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맺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에서 활동하는 철도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